

메시지 3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

성경: 민 18:1, 롬 11:36, 삼하 7:1-3, 5, 11-14상, 욥 38:2, 42:6, 행 22:8, 10

- I.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하고, 그분의 갈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소와 관련된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 민 18:1, 롬 11:36.
 - A. 사람에게 의해 시작되거나 출발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 B.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감동시키시며, 그분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인도하신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받아들여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렘 1:4-10, 17-19, 단 11:32.
- II.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믿음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가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한 행동이었다 — 히 11:4, 창 3:21, 4:1-5, 롬 10:17.
 - A.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을 사람에게 보여 주셨다. 아벨은 이것을 들었고 보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와 정하심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렸다 — 창 3:21, 히 9:22.
 - B. 가인은 자신의 뜻과 의견에 따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러한 드림은 완전히 종교적인 활동이었다 — 창 4:3.
 - C.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과 인도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봉사나 경배는 모두 종교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활동들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 III.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방주를 건축하기 위한 치수와 방법까지도 노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 창 6:14-7:5, 히 11:7.
- IV.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 행 7:2-4, 창 12:1-4, 7-8, 13:14-18, 15:1, 히 11:8-10.
- V.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모형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 출 3:10, 14-15, 25:9, 40, 40:16-17, 34-35, 행 7:44, 히 8:5.
- VI.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협력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했다 — 행 13:36상.
 - A.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심을 가졌지만(삼하 7:1-3),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셨다. 하나님은 신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 — 삼하 7:5.
 - B.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의 결정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나님은 “네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 C.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구약에서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여,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도록 허락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출 21:6, 딤후 2:21하.
 - D.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단에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보다 다윗은 멈추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멈춘 다윗의 행동은 위대한 일이다.

- E. 바버(M. E. Barber) 자매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 F. 다윗이 멈춘 것은 이 우주에서 이중의 증거를 세웠다.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둘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이다.
- G.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다윗에게 집을 건축해 주실 것이며, 이 집에서부터 왕국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삼하 7:11-14상.
- H.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후에도 다윗은 두 번 넘어졌다. 건축자인 아들과 성전 부지 둘 다 다윗이 그의 죄들을 용서받은 결과로 나왔다.
 - 1. 첫째로,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했고 그의 아내인 밋세바를 빼앗았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한 아들, 곧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자가 되었다 — 삼하 11:2-17, 26-27.
 - 2. 둘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수의 전사들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감추어진 교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구획의 땅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후에 그 땅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가 되었다 — 삼하 24:1-10, 18-25, 대상 21:1, 대하 3:1.
- I.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협력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깊은 속에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견과 결정과 구상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하는 것이다 — 마 17:5.

VII. 바울은 주님께 정복되어 회심했을 때 보았던 그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 A. 바울이 주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탐구하는 것이었다 — 행 22:8, 빌 3:10상.
- B. 바울이 주님께 했던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것은 바울의 봉사와 관련된 것이며, 그의 봉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 행 22:10, 롬 1:9, 고후 2:12-14.
- C. 우리는 모두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보다, 주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어야 한다.

VIII. 우리의 봉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A.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예들로부터 한 가지 원칙을 보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이 시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 B. 읊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유일한 선결 조건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의견과 견해와 자아를 멈추는 것임을 계시한다.
 - 1. 읊기는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조언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38:2). 사람의 의견은 그의 말로 표현되고, 그의 말은 그의 의견을 대표한다.
 - 2.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마 16:24)라고 말씀하셨다. 읊이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고”(읍 42:6, 영어 회복역 참고)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견과 견해와 구상을 언급하고 있었다.
- C. 사람에게서 나온 봉사에는 사람의 타고난 누림과 선호와 맛이 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봉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하고 전진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봉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고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 D.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절대적으로 신실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의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 고전 4:1-2, 7:25.
- E. 이러한 봉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우리가 영원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 엡 4:11-12, 계 22:3.